지식경제부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
2013년 2월 14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전력산업과 박성택 과장(2110-4897), 장동우 사무관(4899)
자동차조선과 김정회 과장(2110-5631), 이진모 사무관(5632)
발전회사협력본부 김종진팀장 (3456-6076)

한전 발전자회사와 해운사간 2조원 규모의 유연탄 수송선박 장기용선 서명식 개최

- 15만톤 규모 벌크선 9척(약 4,500억원) 신규발주를 통해 조선사와 기자재업계의 일감확보 지원 -

□ 지식경제부와 한전 발전자회사 5개사는 2.14일(목) 11:00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지식경제부 윤상직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 발전자회사 5개사와 해운사 4개사 간 "유연탄 수송선박 장기용선 계약식"을 개최하였다고 밝힘

<유연탄 수송선박 장기용선 계약 서명식>

- 일시·장소 : 2.14(목) 11:00~11:40, 그랜드 인터콘티넨탈H
- 참석: 지경부 1차관, 발전5사 사장, 해운회사 4사 사장, 조선협회 회장, 한국기자재조합 이사장, 부산기자재조합이사장 등 20여명
- 계약체결 서명식 : 발전5사 사장 ⇔ 해운 4사 사장

○ 이 행사에는 지경부 윤상직 차관, 남부발전 이상호 사장 등 발전자회사 5사 사장*, 현대상선 김성만 사장 등 해운사 4사 사장**과 함께 조선업계를 대표하여 고재호 한국조선협회장과 조선기자재업계를 대표하여 박윤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조합이사장, 이동형 부산조선해양기자재조합이사장이 참석하였음

* 남부발전 이상호 사장, 서부발전 김문덕 사장, 중부발전 최평락 사장, 동서발전 장주옥 사장, 남동발전 장남철 전무 등

** 현대상선 유창근 사장, STX팬오션 배선령 사장, 한진해운 김영민 사장, SK해운 백석현 사장 등

○ 동 계약에 따라 해운사들은 발전연료인 유연탄을 18년간 발전자회사에 해상으로 운송할 예정이며,

- 이를 위해 해운사들은 향후 2개월 내 국내 조선소를 대상으로 유연탄 수송에 필요한 15만톤 규모의 벌크선 9척*을 발주할 계획으로, 이는 '15년부터 '18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연탄 수송에 투입될 예정임

* 현대상선(3척), STX팬오션(2척), 한진해운(2척), SK해운(2척)

○ 금번 장기운송계약을 통해 발전자회사는 유리한 해운운임 및 경제성 있는 선가 등 선박건조 여건을 활용하고, 발전5사 공동으로 입찰을 추진함으로써 원감절감 등 규모의 경제 및 원활한 유연탄 공급이 기대되며,

○ 해운업계는 향후 18년간 약 2조원 규모(연간 약 1,100억원)의 해운 운임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○ 아울러 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가 한전이 조선업계 일감마련을 위해 제시한 '신조(新造) 건조' 요건에 따라 벌크선 9척(약 4,500억원 규모)의 신조 수요가 예정되어 있어 글로벌 조선 불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및 기자재 업계의 일감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

< 계약 개요 >

(내용) 18년간 발전5개사 유연탄 수송선박 입찰, 척당 年1백만톤 유연탄 수송
(규모) 15만톤급 벌크선 9척 신조 (총 4,500억원 규모)
(낙찰자) 현대상선(3척), STX팬오션(2척), 한진해운(2척), SK해운(2척)

□ 지식경제부 윤상직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세계경기 침체로 해운시장 불황을 겪으면서 선박발주가 급감하고, 이는 기자재 업계 일감 부족으로 이어져 관련 산업 생태계 전체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,

○ 이러한 가운데 이번 한전 발전 5개사의 용선계약은 에너지 공기업이 공공부문 선박발주를 통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사·조선소와 조선관련 중소기업*에게 일감을 공급하여 고용유지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

* 유연탄 수송선박 1척(500억원)당 국내 강재, 엔진, 기자재 발주물량은 68%인 306억원 상당으로, 9척 발주를 통한 기자재 매출은 약 2,7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

○ 특히,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발전자회사의 화주(貨主)로서의 위치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힘

○ 향후 금번에 선정된 해운사들이 조선소를 선정하는 절차(약 2개월 소요)가 남아 있는 바, 국내 조선소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연비의 효율적 선박을 제작·인도함으로써 조선업계와 해운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힘

□ 한편, 지식경제부는 향후 조선불황 이후 호황기에 대비하기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소조선·기자재업체의 일감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

○ 향후에도 에너지 공기업을 활용하여 ① 국내 발주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추진함과 아울러, ② 석유·LNG 개발프로젝트에 국내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장하는 해양플랜트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

○ 특히, 향후 '14년말로 예정되어 있는 가스공사의 LNG선*발주(7척, 14억불)에 대해서도 금번 사례와 같이 관련업계의 일감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

* 가스공사는 LNG 도입에 필요한 LNG선 7척(1.4조원) 발주 계획 (14년말)

<첨부> 유연탄 수송선박 장기용선 계약 서명식 현황

1. 서명식 개요

○ 일　　시 : '13.2.14(목) 11:00 ~ 11:40

○ 장　　소 :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H (지하1층 카네이션홀)

○ 참석예정자 : 약 20여명

- 지경부(2) : 지경부 1차관, 자동차조선과장
- 발전5사(6) : 남부발전 이상호 사장, 서부발전 김문덕 사장, 중부발전 최평락 사장, 동서발전 장주옥 사장, 남동발전 장남철 전무, 발전회사협력본부 박종훈 본부장
- 해운회사(4) : 현대상선 유창근 사장, STX팬오션 배선령 사장, 한진해운 김영민 사장, SK해운 백석현 사장
- 조선·기자재(3): 고재호 조선협회장, 박윤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조합 이사장, 이동형 부산조선해양기자재조합이사장

2. 행사 주요내용

○ 인사말씀 : 계약 서명자(남부발전 사장, 해운사 대표)

○ 격려말씀 : 지경부 1차관

○ 계약체결 서명식: 발전5사 사장 ↔ 현대, 한진, SK, STX 대표이사

<유연탄 수송선박 장기용선 계약 서명식>

- 일시·장소 : 2.14(목) 11:00~11:40, 그랜드 인터콘티넨탈H
- 참석: 지경부 1차관, 발전5사, 해운회사 대표이사, 조선·기자재 이사장 등 20여명
- 계약체결 서명식 : 발전5사* 사장 ⇔ 현대상선, 한진해운, SK해운, STX팬오션 대표이사

* 남부발전(주), 남동발전(주), 동서발전(주), 서부발전(주), 중부발전(주)

○ 기념촬영 : 지경부 1차관, 계약사와 조선산업 3개 단체 대표